

‘여객선 운항 통제 결정’ 주민들 반발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통제에 대한 해양경찰 등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흑산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흑산청년행동위원회는 4일 오후 흑산여객선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계속여객선의 운항통제를 위한 시정거리 측정 등에 주민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현재 여객선의 운항통제는 해경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가 해경 경비정의 레이더와 VTS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시정거리가 1km 이하일 때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거리 측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국지적으로 일개 개 필 경우에도 선박운행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수부 ‘도서관 참여 유도’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흑산청년위 “시계 측정시 주민참여 보장 등” 촉구

더욱이 해수부가 지난해 여객선 운항통제를 위한 시정거리 측정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로록 했으나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흑산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계 제한에 따른 여객선의 출입통제 완화와 시정 판단에 현지주민 참여, 시정 1km 미확보시 1일 1회 해경 경비정의 운항 유도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해수부는 당시 국민안전처와 목포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

쳐 “시계제한시 도서민으로부터 시정을 파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현실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흑산청년행동 장준호 대표는 “여객선의 운항통제는 일관성이 있고 선박회사 위주가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계 측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최근 발생한 여객선 좌초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163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는 아찔한 사

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해경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무리한 운항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사고 인근 해상에는 시계가 500m 안팎에 불과한 짙은 안개가 끼었으며, 이후 5일간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장 대표는 “여객선이 수일간 통제될 경우 주민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느낌을 받게 된다”면서 “요구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서해해경청 앞 집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美 전투기, 중국 지부티 기지 부근에 추락

미국 해병대 소속 전투기가 훈련 도중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있는 중국군 기지 부근에 추락했다고 CNN과 중국시보(中國時報)가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 전투기 AV-8B 전투기가 지난 3일 오후 4시(현지시간) 지부티 압둘리 공항에 이륙했다가 지상으로 떨어졌다.

조종사는 긴급 탈출해 목숨을 구했지만 부상을 당했는데 AV-8B 추락 지점이 중국군 기지에서 불과 수km 떨어진 곳이라서 중국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AV-8B 전투기는 중국군 기지 주변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중 사고를 만났다고 한다.

미국 해군 중앙사령부 윌리엄 어번 대변인은 AV-8B 추락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로 지상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압둘리 공항 시설 등에 손상을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군은 지부티에 병력 4000명과 전투기 등을 주둔, 배치한 영구적인 대형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부티는 미국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군사 요충이다. AV-8B는 이오지마 갑상선암환에 실린 공격기이다.

아프리카 소국 지부티는 면적이 2.3만 평방km에 지나지 않지만 각종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각종 군사기지가 밀집해 있다.

중국은 작년 7월 지부티 미군 기지에 인접한 지역에 후방지원기지를 개설했다. 기지는 1000명의 병력이 주둔하며 대형 활주로와 집안시설을 갖췄다.

지부티 기지는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 중국군의 군함 호위와 평화유지, 인도 지원, 군사훈련, 긴급 대피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랍연맹, 이스라엘 가자 유혈 진압 규탄

아랍연맹(AL)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시위대 유혈 진압 사태를 규탄했다.

AL은 이날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지난 주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시위대에 발포해 팔레스타인인 18명이 사망한 상황을 논의했다.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AL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자지구 유혈 진압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안보리가 대응에 실패한다면 유엔 총회에서 이번 사건을 다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불 총장은 “안보리가 계속 (이스라엘 규탄을) 실패한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하고 특별 수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유엔 총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드 아부 알리 AL 부총장은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다며 “이스라엘의 점령 정부가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본사서 총격 사건 발생...총격범 자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샌 브루노 소재 유튜브 본사에서 3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여성이 4명을 향해 총을 발사한 뒤 스스로 총을 쏘아 자살했으며 수백명이 공포에 질려 달아났다고 현지 경찰과 목격자들이 전했다.

총소리를 듣고 신고하는 수백명의 911전화가 접수된 후 유튜브 본사 단지는 수많은 경찰관과 연방 수사관들이 몰려들어 차량으로 현장을 포위했다. 샌브루노 경찰의 에드 바베리니 서장은 취재진에게 총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최소 4명 이상이며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확인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은 이 곳에 실려온 사람중 36세 남성과 32세 여성은 위독한 상태이며 27세 여성은 안정된 상태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북 캘리포니아 스탠포드병원도 총상환자가 4~5명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보도된 방송사 항공사진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두 손을 들고 발등을 빠져 나오는 동안 경찰이 한명 한명 몸을 수색해 무기소지 여부를 기리고 있었다. 현장은 경찰 차량이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었다.

유튜브 직원 비딕 리브루시크는 갑자기 총성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숨어있다가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건물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또 다른 직원은 친구에게 “우리 본사 건물에 총격범이 들어온 것 같다.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모두 대피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마구 달리기 시작하면서 총격사건이라고 외쳤다”고 문자를 보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재난 심리지원

대형 재난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불안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산하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세월호 사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주·포항 지진 등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이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트라우마(trauma)는 생명과 신체적 안녕에 위협이 되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의미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그동안 대형 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을 맡아온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비상설 조직 ‘심리위기지원단’에 이어 재난 이후 심각한 불안 문제를 겪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겸임한다. 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연구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약 17억원이다.

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트라우마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별로 재난 위기대응 및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또 공중·나주·춘천·부곡 등에 설립된 국립정신병원에도 권역별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뉴스



청춘은 지지 않는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윤종로에서 한 노인이 벚꽃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법무·검찰내 성희롱 피해 15건 신고...4건은 구체적”

대책위, 8037명 전수 조사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15건의 이메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건은 구체적인 성희롱 사례가 담겨 대책위 차원의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 권인숙 위원장은 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 조직 구조와 문화, 여성들이 받는 성차별 등 이야기를 두루두루 나누고 있다”며 “성희롱·성범죄 관련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일단 신고절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성희롱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고, 현재 고충상담원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신고하고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보호 받으면서 알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아주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을 포함한 여성직원 8037명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는 직접 설문지를 전달하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6월 완료된다.

또 대책위는 30일까지 이메일 계정을 통해 각종 성희롱·성범죄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현재까지 15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이중 4건은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피해자 파악과

등의 조사에 나선 상태다.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받은 의견 중 다수는 회식 문화 개선 요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 들어온 여직원 또는 젊은 여직원을 가장 높은 간부의 옆자리에 앉히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이 외에도 대책위는 과거 법무부·검찰 내 성비위사건으로 처리됐던 100여건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주도적으로 점검에 참여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성평등 조직문화, 여성이나 남성들이 안정되게 서로 관계 잘 만들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도 대안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일반 건강검진

암예방 건강검진

만성질환 건강검진

심리검진

구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발견률	발견률 감소
건강검진	발견률 100%	-
암예방검진	발견률 42%p 감소	42%p 감소
만성질환검진	발견률 100%	-
심리검진	발견률 18%p 감소	18%p 감소

*발견률은 건강검진이 실시된 후, 미리 미리 건강을 살펴볼 때.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